

## 요약

글로벌 경제 성장의 2차년도를 맞은 아시아는 계속 확고하게 경기 회복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의 제조업이 계속 반등하여 이 지역에 대한 수출과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2010년 상반기에도 이 지역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예상을 초과하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인 금융 혼란의 결과로 시장 변동성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건이 계속 개선되고 있고 시장에 대한 신뢰성도 높게 유지되고 있어, 민간 소비도 견실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0년 하반기에는 경제 활동이 활력을 유지했으나, 지속 가능한 속도로 다소 둔화되었습니다. 특히, 산업 생산 및 수출 증가율이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전세계 및 이 지역의 재고순환주기(특히 많은 아시아 국가들의 생산 및 수출에 중요한 정보기술 제품에 대한)가 성숙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아시아에 대한 기본적인 단기 전망은 계속 긍정적이며, 성장률이 지속 가능한 정도로 안정될 것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경제 규모가 크고 내수를 촉진하고 있는 중국, 인도 및 인도네시아가 견실한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 10월의 *세계 경제 전망*에서 예측했던 것처럼, 선진국의 경제도 2010-11년 동안에 비록 완만하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회복되어 아시아의 수출 증가를 확고하게 뒷받침할 것이나, 2009년과 2010년 초의 매우 높았던 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경기부양책이 점차적으로 완화될 것이나, 노동 시장 상황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금융 상황도 계속 호전되어 민간 내수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으로는 전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시아 지역이 비교적 견실한 성장을 유지하면서도 공공부채가 적으므로, 이 지역에 대한 자본 유입은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수출 증가율의 감소와 견실한 내수를 고려할 때, 아시아의 경상수지 흑자는 2010년과 2011년에 지역 GDP의 약 3퍼센트로 감소(2007년에는 약 5퍼센트)할 것으로 예측되어 글로벌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다소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망에 대한 주요 위험 요인은 외부 환경입니다. *세계 경제 전망*에서 예측한 것처럼, 전세계의 금융 상황은 2010년 6월 이후에 개선되었으나, 선진국 정부와 은행의 근본적인 취약성으로 인해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세계 경제 회복의 강도가 계속 약화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기본적인 경제 및 정책 지표가 견전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무역과 금융이 선진국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금융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세계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는 경우, 이 지역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견실한 경제 회복이 진행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나타나고 있는 징후들을 고려할 때, 아시아는 이 지역 전체에서 정책 기조를 정상화할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많은 국가들이 이미 이러한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통화 및 재정 정책은 일반적으로 여전히 경기 부양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총생산 갭이 신속하게 축소되는 경우, 내년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화되어 정책들이 더욱 경기 순응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제II장에 설명된 것처럼, 부족한 생산능력의 제약을 받아 공급 충격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자본 유입이 지나치게 자금이 풍부한 국내 금융 상황과 연계되는 경우 금융 안정성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지역의 많은 국가들은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절한 거시 건전성 조치를 취했으나, 환율의 추가 평가절상을 포함하여 통화정책을 더 긴축적으로 운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재정적 경기부양책을 신속하게 철회하는 것도 경기 과열과 금융 불균형 발생의 위험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이 지역의 국가들은 정책 기조의 정상화를 지연시킬 여지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중기적으로, 아시아가 견실한 성장을 지속하려면 내수 진작을 통해서 성장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아시아 전체로 보면, 외부 불균형이 단지 부분적으로만 감소되었습니다. 2009년에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비율이 감소했으나, NIE와 ASEAN에 속한 다른 많은 아시아 국가들의 비율은 증가했습니다. 선진국으로부터의 외부 수요는 예측 가능한 미래에 금융 위기 전 추세로 회복될 것 같지 않음으로, 아시아는 내수를 강화해야 견실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시아의 정책 정상화는 국내 민간 수요와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조치와 병행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민간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2010년 4월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전망*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번 호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전망* 제III장에서는 투자 증가에 대한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 서비스 부문에 속한 내수 위주의 소기업들이 신용에 접근하는 것을 촉진하는 조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재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저소득국가들과 태평양 제도국들은 경기부양책과 일차상품 및 의류의 글로벌 수요 증가에 힘입어 최근 몇 분기 동안 경기가 상당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단기 및 중기적으로, 이러한 국가들은 재정 상태를 강화하고 더 많은 정책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건전화의 필요성과 성장잠재력을 증가시키고 취약성을 감소시킬 필요성을 포함하는 중대한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제IV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주로 검토합니다.

